

그리스어 번역 및 글쓴이, 이대선 목사

요한1:1-3 하느님, 로고스, 예수

요한복음 1:1-2절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느님(아버지) 곁에/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느님(의 신성)이었다(1절)

οὗτος ἦν ἐν ἀρχῇ πρὸς τὸν θεόν.

이 사람은 태초에 언제나> 하느님(아버지, 신격) 곁에/과 함께\ <있었다(2절).

요한복음 1:1-2절 그리스어 용어 정리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에서 정관사가 붙은 ὁ λόγος 그 말씀은 '이 주'이다. 정관사가 붙지 않은 θεός는 술어다. 그 말씀은 하느님(신성)이었다(1절). 하느님(신성)이 그 말씀이었다가 아니다(RD387(c)).

ἐν ἀρχῇ = בְּרֵאשִׁית 버레○쉬트(창세1:1)와 같은 단어이며, 때를 나타내는데 (창세1:1)과 같은 창조하던 때를 가리킨다(M76, TH773). ἐν ἀρχῇ 엔 아르헤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전치사구로서 한정이 되기 때문에(R791) 영어로는 전치사를 붙여서 in the beginning이라 옮긴다.

ἦν 직설법 동사로, 단순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선언할 때에 사용한다. 직설법 동사는 사실이나 주장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나 주장하는 사실이 실재이고, 현실이라는 점을 보장guarantee하지는 않는다(DM168). ἦν (IdipA3)은 언제나 계속상의 미완료 durative imperfect이다(R883). οὗτος ἦν ἐν ἀρχῇ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는 태초에 언제나> 하느님(아버지, 신격) 곁에/과 함께\ <있었다(2절),로 옮긴다. 언제나-있었다는 표현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표현이다는 > <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πρὸς τὸν θεόν(4), 프로스 톤 떤에는 4격이 왔기 때문에 전치사 πρὸς는 위치position를 표현한다(M53). 즉 위치 상으로 ὁ λόγος 그 말씀은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 하느님(아버지)과 같이 ἦν 있었다,는 뜻이다. ATRobertson은 πρὸς 프로스의 뜻을 '...의 곁으로부터'라 정의한다(R579).

따라서 ὁ λόγος '그 말씀은 하느님(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뜻인데, 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는 내용과 같은 의미로 보았다(R623). Robertson은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RD§369),로 옮겼다.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이라는 그리스어 어휘는 70인역 구약성경과 신약에서 1절에서 1회 사용되었다. 영어

로는 hapax legomenon 헵악스 레가메논이라 부른다.

πρὸς τὸν 프로스 톤이 사용된 구절을 또 하나 예문으로 든다면,

θαρροῦμεν δὲ καὶ εὐδοκοῦμεν μᾶλλον ἐκδημῆσαι ἐκ τοῦ σώματος καὶ ἐνδημῆσαι πρὸς τὸν κύριον. (2Co 5:8 GNT)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주님에게로 떠나고 싶다.

τὸν θεόν, 톤 떤온에는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인격자로서의 하느님’을 표현한다. 따라서 정관사가 붙은 τὸν θεόν ‘하느님(신격)’이라 옮겨서 정관사가 붙지 않은 θεὸς 떤오스 하느님(신성)과 구별한다.

θεὸς, 떤오스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으면, 신의 본질essence을 의미하고, 정관사가 붙었으면 신의 인격personality을 표현한다(DM139).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떤오스 엔 호 로고스는, ὁ λόγος 그 말씀의 본성nature(=본질essence)을 표현하고 있고, 신의 인격personality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θεὸς 떤오스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다(M116). 정관사가 붙지 않은 θεὸς 떤오스는 술어predicate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규칙이다(R794)

정관사가 붙지 않은 θεὸς 떤오스는 ‘하느님(의 신성)’이라 옮긴다. 반면에 정관사가 붙은 τὸν θεόν, 톤 떤온은 ‘하느님(아버지)’라 옮기므로 정관사의 유무에 대해서 차이가 있게 번역한다. ‘하느님’이란 표현은 구두(말)로는 사용해도 좋다. 그러나 글로 적을 때에는 반드시(언제나) θεὸς 떤오스 하느님(신성), τὸν θεόν, 톤 떤온은 ‘하느님(아버지)’으로 식별해서 기록함으로 혼동을 피한다.

θεός 가 주어로 사용되면 정관사와 함께 ὁ θεός, (R795).

술어로 사용되면 정관사 없이 θεός,

속격으로 사용되면 정관사 없이 γνώσεως θεοῦ· 하느님의 지식(Rom 11:33 GNT)

전치사와 사용되면 정관사 없이 ἐν θεῷ 하느님 안에서 in God (Joh 3:21 GNT)

형용사와 사용되면 정관사 없이 θεὸς εὐλογητὸς 축복받으신 하느님(Rom 9:5 GNT)

분사와 사용되면 정관사 없이 θεῷ ζῶντι καὶ ἀληθινῷ 살아계시는 참 하느님 (1Th1:9 GNT).

신성,은 신의 본질essence, 신의 속성nature, 등을 표현한다. 속성이란 개체가 가진 본질, 속성, 성품등을 뜻한다.

신격,은 신의 인격=하느님 아버지를 the person of the Father 표현한다.

인격이란 삼위일체에서 분리되는 개체를 뜻한다.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떤오스 엔 호 로고스의 θεός를 ὁ θεός 호 떤오스와 동일시 취급해서 θεός를 ‘하느님’이라 이해하면, 즉 ‘the Word was ὁ θεός, ‘그 말씀이 하느님(아버지)이었다’로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Sabellianism이다(M116). Sabellianism이란 Sabellius의 견해다.

θεός 떼오쓰 ‘하느님(의 신성)’은 ὁ θεός ‘하느님(아버지)’ 보다 약한 열등, 열세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오직 신의 속성, 성질을 의미한다.

요한1:1-3은 삼위일체를 지지, 후원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ὁ λόγος 그 말은 ‘하느님(아버지)’은 아니다.

ὁ θεός 호 떼오쓰 ‘하느님(아버지)’는 창조자로서 ‘빛이 있어라’고 발언한, 선포한 신이다.

ὁ λόγος 그 말은 ‘신의 속성에서 부족하거나 열등inferiority하지 않지만 ὁ θεός 호 떼오쓰 창조자, 발언자, 선포자는 아니다.

ὁ λόγος 그 말은 ‘창조 때에 담당했던 역할에 있어서 ὁ θεός 호 떼오쓰 ‘하느님(아버지)’이 창조때에 사용한 도구, 수단(말)의 부류에 속한다.

이러한 점을 도표로 표현하면,

τὸν θεόν,

:

ὁ λόγος

위와 같은 배열이 뜻하는 바는 ὁ λόγος ‘그 말’이, 능력면에 있어서 ὁ θεός 호 떼오쓰 ‘하느님(아버지)’ 보다 열등inferiority하다는 뜻이 아니다, ὁ λόγος ‘그 말’이 ὁ θεός 호 떼오쓰 ‘하느님(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그러나, 창조 때에 담당했던 역할에 있어서, ὁ θεός 호 떼오쓰 ‘하느님(아버지)’께서 창조하는 ὁ λόγος ‘그 말’을 도구.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ὁ θεός 호 떼오쓰와 ὁ λόγος 사이에는 창조주(발언자)와 도구.수단(말)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ὁ λόγος ‘그 말’은 ὁ θεός 호 떼오쓰 ‘하느님(아버지)’와 같은 서열에 놓이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면, 다음으로 진행하겠다.

14절은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그 말’이 육신이 되었다. ὁ λόγος ‘그 말’이 육신=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의 도표에 포함시키면,

τὸν θεόν,

:

ὁ λόγος = σὰρξ =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이렇게 보면, 요한1:1-3은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때에 담당했던 역할에 있어서, ὁ θεός 호 떤오스 '하느님(아버지)'와 동등한 서열에 놓지 않았고, 창조주(발언자)와 도구.수단(말)의 관계가 형성된 ὁ λόγος 말과 동등한 서열에 놓았다. 따라서 요한1:1-3은 삼위일체를 지지, 후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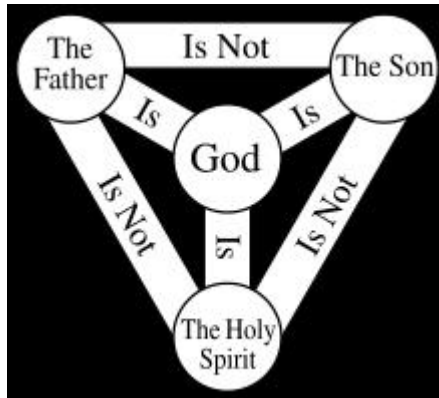
요한1:1-3은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예수 그리스도를 θεός 호 떤오스 '하느님(아버지)' 보다 단계가 낮은 창조주(발언자)와 도구.수단(말)의 관계가 맺어진 ὁ λόγος '그 말'과 대등한 서열에 놓은 점은 빌립보2:6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ὃς ἐν μορφῇ θεοῦ ὑπάρχων οὐχ ἄρπαγμὸν ἠγήσατο 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ῷ,
그는 신의 형상으로 존재하면서도 그는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삼위일체 Trinity 정의:

3신격 하나님이다.

하나(1)인 신이 3개의 인격,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성령, 하느님 아들로
개성이 있게 분리되는 신이 삼위일체다(이대선 목사).



'개성이 있게'라는 말은 도표에서는 'Is Not'에 해당한다.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떤오스 엔 호 로고스, 그 말씀은 하느님(의 신성)이었다(1절)에서
θεὸς에는 정관사가 없다.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떤오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느님(아버지)과 같이 있었다,에서는, 하느님(아버지)에는 정관사가 붙은 τὸν θεόν,
이 사용되었다.

τὸν θεόν,

:

ὁ λόγος = θεὸς

정관사가 없는 θεός 하느님(신성)은 정관사가 붙은 τὸν θεόν 하느님(아버지)보다 등급이 낮다.

술어에는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규칙이다. θεός ἦν ὁ λόγος에서 술어로 사용된 θεός에만 특별히 정관사가 붙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술어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는다는 규칙은 범우주적이다. 특히 ὁ λόγος처럼 주어가 사물들을 표현하는 문장에 사용된 술어는 한 개인이나 개별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 주어가 속한 그 부류의 성질, 성품 등을 설명(표현)한다(Zerwick172)는 점이다. 따라서 θεός ἦν ὁ λόγος에서 술어 θεός는 주어인 ὁ λόγος의 성질이나 성품 등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서, θεός ἦν에는 술어 θεός가 동사 ἦν 앞에 놓였다. 술어가 이처럼 동사 앞에 놓이면 정관사가 생략되는 것이 통례다. 심지어 술어가 한정이 되었어도 정관사가 생략된다. 그러나 동사 다음에 놓이면 흔하게 정관사가 술어에 붙는다. 한 두 곳 예문들을 읽어보자.

① ‘Ραββί, σὺ εἶ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σὺ βασιλεὺς εἶ τοῦ Ἰσραήλ.

선생님,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요한1:49).

술어 ὁ υἱὸς 호 휘시오쓰가 동사 εἶ 에이 다음에 놓였기 때문에 υἱὸς 휘시오쓰에 정관사 ὁ 호가 붙어서 ὁ οὐἱὸς 호 휘시오쓰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하반절의 술어 βασιλεὺς는 동사 εἶ 에이 앞에 놓였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지 않은 명사 βασιλεὺς가 술어로 사용되었다(Zerwick175)

② ‘Ο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ἀλλ’ ὅτι ἐκεῖνος εἶπεν,

Βασιλεὺς εἰμι τῶν Ἰουδαίων. ‘그 유대인들의 그 왕, 그러나 그는 ‘내가 그 유대인들의 왕이다’

고 말했다(요한19:21). 하반절의 술어 Βασιλεὺς가 동사 εἰμι 앞에 놓였기 때문에 정관사가 없이 술어로 사용되었다.

번역에서 이러한 술어의 문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θεός ἦν ὁ λόγος 그 말씀은 하느님(의 신성)이었다,(1절)고 옮겼다. 만일에 ‘그 말씀은 하느님이었다’라고 옮기면, 이를 그리스어로 다시 옮기면, ‘the Word was ὁ θεός, ‘그 말씀이 하느님(아버지)이었다’가 되는데,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이러한 해석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Sabellianism이다(M116). 여기에서 한국어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읽어 보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πάντα(Nn)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idAoMD3)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3절),에서

δι’ αὐτοῦ 그를 통해서는 만드는 도구, 수단,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δι’ αὐτοῦ 그를 통해서,가 주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WTT וְאֵלֹהִים יְהִי וְאֵלֹהִים יְהִי וְאֵלֹהִים יְהִי:

바요○메르 엘로힘 여히 오르 바여히-오르 ‘그리고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창세1:3).에서 읽어 보듯이, 말로 명령해서 창조하는 발언 주어는 אֱלֹהִים 엘로힘 하느님이다. 말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용한 도구, 수단, 방법에 속하지, 말씀이 창조하지 않았다.

요한1:1-3을 기록한 요한의 공헌

예수 = λόγος (창조때 사용하신 말씀) = θεός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요한1:14).

하느님께서 창조 때에 사용하신 λόγος 로고스 ‘말씀’을 τὸν θεόν 하느님(아버지)와 동격으로 대등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요한은 λόγος 로고스 ‘말씀’을 정관사가 없는 θεός 하느님(신성)과 동격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14절에서 Καὶ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καὶ ἐσκήνωσεν ἐν ἡμῖν, 카이 호 로소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살으셨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예수의 출생을 말씀이 출생한 것으로 동일하게 증언했다. 요한은 예수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용했던 말씀과 동일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신언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용해서, 사용해서, 오늘 날에도 하느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즉, 도성인신해서 사람의 말로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성경을 창조때에 하느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과 동격으로 승격시킨 것이 요한의 공로다. 요한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지지도, 후원하지도 않았다.

요한복음 1:2절

οὗτος ἦν ἐν ἀρχῇ πρὸς τὸν θεόν.

이 사람은 태초에 언제나> 하느님(아버지, 신격) /결에/과 함께\ <있었다(2절).

οὗτος ‘이 사람은’ 한정동사finite verb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격주어다. οὗτος는 누구를 지적하고, 지명하고,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동사 ἦν(1dIpA3)는 3인칭 동사로 동사 안에 3인칭이라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사가 3인칭이기 때문에, 이 주어를 보다 더 확실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οὗτος 후토스를 사용해서 ‘이 사람은’이라고 확실하게 지명을 했다(BW4).

οὗτος 후토스는 소급(재개시) 대명사resumptive pronoun로 1절로 소급해서(R700) 1절에 나온

ὁ λόγος ‘그 말씀’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1:3절

πάντα(Nn)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1dAoMD3), καὶ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ἓν. ὃ γέγονεν (1dPfa3)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03, 존재하지 않았다(3절).

γέγονεν(1dPfa3) 게고넨은 직설법 과거 동사이지만 계속적인 뜻을 포함한다: γέγονεν = ‘존재

하는existing' (BDF342(1)) 것으로, 옳긴 이유는, 과거동사perfect로 한 동작이나 과거에 발생했지만, 그 동작의 성취나 완료는 현재에서 완료되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직설법 동사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과는 상관이 없으면서 그 동작의 단순한 주장이나 그 확실성certainty을 선언한다. 그래서 직설법 동사는 단순하게 그 동작을 사실로as true 선언한다(DM162).

ἐγένετο(IdAoMD3)에서는 직설법 부정과거aorist가 왔는데, γέγονεν(IdPfA3)에서는 직설법 과거 동사가 사용되었다. 두 가지 시제 중에서 어느 시제를 선택하는 가는, 과거 동작이 현재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느낌에 달려있다. 배움이 없이 기록된 Koine 그리스어에서는, 과거동사perfect로 한 동작이나 현상이 과거에 발생했지만, 그 동작의 성취나 완료는 현재에서 완료되었음을 표현했지만,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던 과거동사의 용례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부정과거와 과거 동사가 무분별하게promiscuously 사용되기 시작했다(MTIII68). 그래서 부정과거aorist로도 그 과거의 동작이 아직도 현재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동작을, 즉 과거에 발생했으면서도 현재에도 그 동작이 영향을 미치는 과거동작을 표현했다(MTIII69). 그래서 ἐγένετο(IdAoMD3)를 '존재하게 됐다'라고 옳겼다.

δι' αὐτοῦ에서는 αὐτοῦ가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치사 διά에서 마지막 모임 ἅ가 탈락했다(DM102). 또한 전치사 δι'는 강조 대명사 αὐτοῦ 앞에 붙어서 강조 대명사 αὐτοῦ를 강조하거나 αὐτοῦ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DM102). 더 나아가서 강조 대명사 αὐτοῦ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분리시키면서 αὐτοῦ의 신원(=예수)(Fr4154)의 뛰어난(Th878) 강조한다.

δι' αὐτοῦ(2)는 중개intermediary적인 또는 도구적인 창작causality을 뜻한다(Zr113). 따라서 δι' αὐτοῦ(2)로 동작 창작자로서의 말씀(그리스도)의 동작을 표현할 때에 너무나 많은 강조력을 전치사 δι'에 부여하면 의미가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적인 창작causality의 뜻을 넘어서서, **הָאֵלֹהִים אֲרָבָה**

□ 바라○ 엘로힘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창세1:1)는 구절을 도외시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단독으로, 홀로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인상을 남긴다면 요한1:3의 가르침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οὐδὲ ἓν 어느 하나라도...않았다,는 표현은 강조형이다. οὐδὲ εἷς는 οὐδεῖς 보다 더 강한 표현이다. 그리고 οὐδὲ εἷς는 Xenophon, Demosthenes, LXX, Atticists 등의 문헌에서도 나오는 표현이다(R751.4). οὐδὲ = οὐ + δέ. οὐ는 초창기 문헌에서는 가정법 문장에서 사용되었다(R918).

요한은, 예수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오래 전에 작은 누나가 에집트를 가서 피라미드를 보고는 미국에 왔었다. 그래서 나는 식구들을 데리고 누나와 함께 라스베가스 와 레인보우, 자이언스 캐년 등등 10일간 둘러보는 여행길을 떠났다. 라스베가스로 운전하고 가는 4시간 동안, 작은 누나는 에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다. 유타 주의 광활한 경치가 누나의 눈에 차질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라스베가스로 운전하면서도 마치 내가 에집트의 피라미드를 찾아가는 것같이 누나의 재미있는 여행담에 빠져서 후버담을 들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쳤다. 에집트에 다녀 온 여행담을 말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나를 찾아 왔던 것이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πάντα(Nn)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IdAoMD3), καὶ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ἓν. ὃ γέγονεν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으로 어느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⁰³, 만들어지지 않았다(3절). 동사를 2번 사용했다. 그것도 같은 동사 ἐγένετο(IdAoMD3) 만들어졌다,를 2번 사용했다. 이 동사는 수동태다. 자연히 만든 주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Posthumorous Honor 죽음 이후에 수여된 명예

저자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는 기록이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에 33년간 살면서, 애들아! 내가 지구를 만들었다. 내가 달도 만들고, 화성도 만들고, 목성, 토성...저 은하수도 바다도 하늘도,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창조했다고 말하고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호기심에서라고 스스로, 누가 묻지 않았어도, 마치 내 누나가 에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구경하고 온 여행담을 쉬지 않고 예기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의 별을 만들어 공중에 띄우고 새로운 별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기록이 신약 성경에 없어요.

만일에 제자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입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아니다!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대답 하시면서,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요한14:3에 가면,

καὶ ἂ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μψ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ἑμαυτόν,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ὑμεῖς ἦτε.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장소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수 있도록!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순발력이나, 재치력을 달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가서 장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말씀했는데, 오셔서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한 마디 대답해 보시지요!

대답1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와서 데려갔다 또 데려다 놓고 몇 번이라도 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빛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복동작을 하셨을 거라는 명답이었다.

대답2

어느 날, 에집트에서 피라미트를 구경하고 미국에 와서 나에게 피라미트를 설명해 준, 작은 누나에게 물었을 때다. 야! 거 질문 좋다. 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당에 가서는, ‘내가 지상에서 돌아왔다!’ 죽었다가...말 문을 채 다 열기도 전에,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몰아닥치고, 장노들이 군대처럼 예수님 앞으로 닦아오면서, 아 지금 지상은 어떻습니까? 야! 예수님께서서는 에덴동산에 가서 구경하셨습니까? 이렇게들 천국 신도들하고 지구 선교담을 주고받고 예기하느라 엄청나게 바쁘시다. 그 뿐이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른 별 나라를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신 생별(생명체가 있는 별)을 찾아가

셔서 예수님께서서는 저 생명체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선을 가르치시고 천국시민으로 교화하시니라고, 쉴 틈도 없이 엄청나게 바쁘셔서, 지구에는 다시 돌아 올 틈도 없단다!

이것도 명답이었다. 나는 뒤통수를 2번 얻어맞았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나를 맞이하실 거라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마지막 숨을 거둔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기독교인의 종말적인 위로의 말씀으로 살아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믿고 있다.

πάντα 판타 '모든 것들이'란 무엇들을 포함하는가?

πάντα 판타 '모든 것들이'는 중성 복수형 주격nominative 또는 목적격objective이 된다.

πάντα 판타의 뜻

πάντα 판타는 중성 복수형으로 '모든 것, everything, all things'을 의미한다. *πάντα*는 중성형이기 때문에 사물을 포함하지, 결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πάντα*(Nn)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IdAoMD3)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에서 '모든 것들' *πάντα*(Nn)는 역시 사물을 표현하는 중성형 명사다.

요한은 *ὁ λόγος*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πάντα* 판타 '모든 것들'이라고 적었다. *ὁ λόγος*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적지 않았다. 창세기 1장에서 하_느님께서서는 말로 명령을 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과 하바는 말로 명령형을 사용해서 만들지 않았다. 하_느님께서 직접,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직접 먼지로 만드셨다. 말,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πάντα* 판타에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는 대한 성서 번역은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떤오쓰 엔 호 로고쓰에서 *θεὸς*를 *ὁ θεός* 호 떤오쓰와 동일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Sabellianism(M116)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ὁ θεός* 호 떤오쓰는 '하_느님 아버지'(하_느님 신격)이다. 하_느님의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설명하면 *ὁ θεός* 호 떤오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יְהוָה יְהוֹיָחִים 여_ㅎ바 엘로힘'이란 하_느님을 호칭하는 두 개의 이름들이 동격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창세2:4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ὁ θεός* 호 떤오쓰란 표현은 하_느님을 호칭하는 두 개의 이름들 **יְהוָה יְהוֹיָחִים** 여_ㅎ바 엘로힘'의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한다. 특히 두 번째 이름 **יְהוֹיָחִים** 엘로힘'이란 전쟁의 신, 심판의 신, 세상을 말로서 창조하신 신의 기능들을 표현한다. 한 마디

로 말하면 אֱלֹהִים 엘로힘이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때오쓰 엔 호 로고쓰에서 θεὸς란 구약에서 אֱלֹהִים 엘로힘에게 주어진 창조적이고, 무섭고 떨리고 놀랍고 세상을 심판하는, 신의 능력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그런대로 맞게 이해한다고 본다. 메시아로 도성인신하셔서, 세상에서 33년간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의 기록에서는 구약에서 אֱלֹהִים 엘로힘에게 주어진 창조적이고, 무섭고 떨리고 놀랍고 세상을 심판하는, 신의 능력들이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심판하지도 않았고, 로마국가를 때려 었은 것도 아니고, 지상에서 다른 별을 창조하지도 않았으니까!, 구약에서 이름 יהוה 여호와에게 주어졌던 신성θεὸς가 도성인신했다고 보면 그런대로 가깝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왼손 오른손들이 떨어진 것처럼, 밤과 낮처럼 단순한 정신력으로 흑백 두가지 색깔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목에 그리고 몸체에 붙어있다. 신들의 속성들을 깊이 분석하고 들어가면 어느 기능을 어느 이름에 부여해야 하는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에 다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게 되는 기능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저술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해했기 때문에도, 1절에 기록된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때오쓰 엔 호 로고쓰에서 θεὸς를 ὁ θεός 호 때오쓰 ‘하나님(아버지, 신격)과 동일시 취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아버지)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이었다(1절)’고 구별해서 번역한 것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대한 성서 번역은 영어번역 (and the Word was God) 보다 더 강하게, 삼위일체를 반대했던 Sabellianism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상술한 점들을 잘 이해한 후에야, 1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

요한1:1-3의 내용은

1. 삼위일체를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않는다.

τὸν θεόν,

:

ὁ λόγος = θεός

ἡμῖν εἷς θεός ὁ πατήρ 우리에겐 한 분 하느님 아버지'라고 사도바울 선생도 전했기 때문이다.(1Co 8:6 GNT)

2. 이에쑤스가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①

אֱת־הָאָדָם עָרַךְ הוֹהִי אֱלֹהִים יְצִיֹו

여호와 하느님(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먼지로 지으셨다,고 (Gen 2:7 WTT)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그리스어 πάντα 판타는 중성형 복수형으로 사물을 표현한다. 사람은 πάντα 판타의 뜻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 복음서에서 πάντα 판타 '모든 것들'은 결코 사람을 포함시킨 예문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어 기초 문법이다.

3. 요한1:1-3은 **Posthumorous Honor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수여된 명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거할 때에 자신이 세상창조에 대해서 말할 기간이 33년이나 있었는데도 지구, 달, 바다, 하늘, 화성, 목성, 금성,...은하수 등등을 만들었다고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었다는 기록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볼 때에, 그러므로, πάντα(Nn)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IdAoMD3),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신약에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그것도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최고의 명예라고 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기록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수여되는 존칭이나 명예 혹은 그 무엇을 구세주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특이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경전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묻는 질문의 의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세주 그리스도에게 주실 수 있는 준비된 존칭 명칭들을 준비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고 싶은 경외하는 존칭이다.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란 용어는 LXX 70인역이나, 신약성경 그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다. 오직 마태복음서에만 17회나 사용되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마태3:2)고 새레요한이 외쳤다. ① 그 다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4:17)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외치셨다. ②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5:3), ③

- '천국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자들의 것이다(5:10), ④
- '천국이 가까왔다고 가면서 외쳐라!(10:7), ⑤
- '천국을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앗아간다'(11:12), ⑥
- '천국은 땅에다 좋은 씨앗을 심은 자에 비교할 수 있다(13:24), ⑦
- '천국은 땅에 심는 겨자씨와 같다'(13:31), ⑧
- '천국은 밀가루 속에서 번져가는 누룩과 같다'(13:33), ⑨
- '천국은 보물이 땅에 숨겨진,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그 들판과 같다'(13:44), ⑩
- '천국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13:45), ⑪
- '천국은 바다에서 모든 고기들을 잡아올리는 어망과도 같다'(13:47), ⑫
- '천국은 그의 종들하고 돈을 계산하는 왕과 같다(18:23), ⑬
-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19:14), ⑭
- '천국은 새벽부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20:1), ⑮
-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결혼축제를 베푸는 왕과 같다'(22:2), ⑯
-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간 10처녀와 같다'(25:1). ⑰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은 그리스도에게 '천국의 왕, 천국의 신'이란 경외하는 호칭을 올려드린다. 요한(1:1-3)은 '말씀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을 돌려서 기록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발언주격으로 삼고,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제자들이 신약에 기록한 곳이 없다.

그러나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그 하늘들의 그 왕국' = '천국'이란 용어는 예수님께서 발언자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을 시종일관 말씀하셨고 천국을 가르치셨다고 마태가 기록했다.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천국'이란 성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천국의 창시자, 천국의 창조자'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천국의 왕, 천국의 신, 천국의 창시자, 천국의 창조자'라는 경외하는 호칭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린다. 나는 이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천국의 왕, 천국의 신, 천국의 창시자, 천국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이제, 이 설교는 미완성으로 내보낸다. 본인(이대선 목사)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 천국의 신, 천국의 창시자, 천국의 창조자'란 호칭들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설교를 읽거나 듣는 귀하, 크리스찬인 당신이, 당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한 혹은 예수님께 올려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경외하는 호칭들로 이 설교의 마지막을 계속해서 적어나가기 위해서 이 설교를 미완성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경외하는 호칭을 올리는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성영도 아니고, '성영'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면, 본인이 쓴 '성령님과 성영의 식별'이란 글을 먼저 읽어 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려드리는 호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신약이나 구약에서, 예를 들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 말씀 = 예수님'과 동격으로 승격시킨 이미 기록된 호칭들은 사용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만든 호칭들만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에는, 크리스찬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본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귀 교회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⑰번 이상 설교하는 것을 들어 보셨는가요? -끝-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들 ὁ λόγος 그 말씀 '은 무엇인가?

ὁ λόγος ἐστὶν ἀληθινὸς 그 **잡언**은 참이다 (Joh 4:37 GNT)
Σκληρὸς ἐστὶ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이 **말**(가르침)은 단단하다 (Joh 6:60 GNT)
τίς ἐστὶ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ὃν εἶπεν 그가 말한 이 **말**은 /무슨 뜻/무엇\이냐?(Joh 7:36 GNT)
ὅτι ὁ λόγος ὁ ἐμὸς οὐ χωρεῖ ἐν ὑμῖν.

내 **말**은 너희들 가운데선 장소가 없기 때문에(Joh 8:37 GNT)

εἶπεν θεοὺς πρὸς οὓς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ἐγένετο, (Joh 10:35 GNT)

하느님 아버지의 **말**이 내려온 자들을 그는 하느님 아버지라 /불렀다/말했다.\

he called 'elohim' the people to whom the word of Elohim was addressed(CJB)

ἵνα ὁ λόγος Ἡσαΐου τοῦ προφήτου πληρωθῆ ὃν εἶπεν, (Joh 12:38 GNT)

그가 **말**한 예언자인 에이사이아스의 그 **말**이 성취되도록

ὁ λόγος ὃν ἐλάλησα 내가 발언한 그 **말**은 (Joh 12:48 GNT)

ὁ λόγος ὃν ἀκούετε οὐκ ἔστιν ἐμὸς 너희가 듣는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Joh 14:24 GNT)

ἵνα πληρωθῆ ὁ λόγος ὁ ἐν τῷ νόμῳ αὐτῶν γεγραμμένος (Joh 15:25 GNT)

그들의 율법서에 기록된 그 **말**이 성취되도록

ὁ λόγος ὁ σὸς ἀλήθειά ἐστιν. 당신의 **말**은 참이다 (Joh 17:17 GNT)

ἵνα ὁ λόγος τοῦ Ἰησοῦ πληρωθῆ 이에수스의 **말**이 성취되도록 (Joh 18:32 GNT)

삼위일체 반대학설들:

Modalistic Monarchianism = Modalism = Sabellianism, Patripassianism 등이 있다

Monarchianism은 Dynamic Monarchianism and Modalistic Monarchianism으로 나누어진다.

Dynamic Monarchianism, 우리 속에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도 있었는데 보다 더 강하게 있었다고 보는 견해다. 즉, 하느님께서 예수 안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견해다. 반복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Modalistic Monarchianism = Modalism, 한 하느님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 부활후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견해다. 즉 한 하느님이 3가지 다른 모습modes으로 계시했을 뿐 3가지 인격들이 아니라는 견해다.

Patripassianism, 하느님께서 직접 도성인신했고, 고통을 당했고, 죽었고, 부활했다는 견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또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견해다.

Modalistic Monarchianism / Modalism / Sabellianism / Patripassianism 견해들의 결함은, 하느님을 3신격, 하느님 아버지 God the Father, 하느님 성령 God the Holy Spirit, 하느님 아들 God the Son으로 보지 못하는 데에 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πάντα 구절들을 읽어보자.

πάντα가 주격으로 사용된 예문들

① τὰ ἐμὰ πάντα σά ἐστιν 나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것이다(Joh 17:10 NAB)

② πάντα ὅσα ἔχει ὁ πατήρ ἐμὰ ἐστιν·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Joh 16:15 DBY)

③ ἤδη πάντα(Nn) τετέλεσται(IdPfP3) everything was now finished(Joh 19:28 NAB)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이 성취 되어졌다.

③번 예문에선 πάντα가 중성 복수형 주격인데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이 사용된 점이 유의할 점이다. ③번 예문이 본문 3절에 나오는 πάντα(Nn) ἐγένετο(IdAoMD3)와 같은 문형이기 때문이다.

πάντα(Nn) ἐγένετο(IdAoMD3)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를 라틴 번역에서는 omnia facta sunt 역시 수동태로 옮겼다. 수동문이기 때문에 동작 주어가 언급되지 않았다.

πάντα가 목적(대)격으로 사용된 예문들

πάντα ὅσα(4) ἐποίησα,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Joh 4:29 NAB)

πάντα ἑωρακότες ὅσα ἐποίησεν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이에로솔루마에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보았으면서(Joh 4:45 DBY)

πάντα δὲ ὅσα εἶπεν Ἰωάννης 그러나 이완네스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Joh 10:41 DBY)

ὑπομνήσει ὑμᾶς πάντα ἃ εἶπον ὑμῖν [ἐγώ].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에 대해서),

그가 너희들을(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할 것이다(Joh 14:26 NAB)

πάντα ἃ ἤκουσα παρὰ τοῦ πατρός μου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Joh 15:15 NAU)

ἀλλὰ ταῦτα πάντα ποιήσουσιν εἰς ὑμᾶς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Joh 15:21 NAU)

νῦν οἶδαμεν ὅτι οἶδας πάντα

이제는, 당신이 모든 것들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Joh 16:30 NAB)

εἰδὼς πάντα τὰ ἐρχόμενα ἐπ’ αὐτὸν

그에게 일어나게 될 모든 것들을 알면서 그가 알면서(Joh 18:4 NAB)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주여! 당신은 모든 것들을 아시나이다(Joh 21:17 NAB)

πάντα 판타 ‘모든 것들’을 사용한 동사들은, 행하다, 일어나다, 듣다, 안다, 말하다, 등등으로 사람이 행동하거나 또는 지각동사들이다.

